우물을 팔 때 생기는 허공은?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⑰ 공대(空大)의 출처

〈원문〉

"아난아, 허공의 성품은 형상이 없어서 색을 인하여 나타나느니라. 실라벌성에서 강으로부터 먼 곳에 찰제리나 바라문, 비사, 수타, 바라타, 전다라들이 집을 세워 마을을 만들 적에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하는데 흙이 한 자 나오면 한 자의 허공(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흙을 한 길(一丈)을 파면 한 길의 허공이 생겨 허공의 깊고 얕음이 흙을 파냄이 많고 적음을 따르나니, 이 허공이 흙을 인하여 나온 것인가? 파냄을 인하여 나온 것인가? 원인이 없이 저절로 생기는가? 아난아, 만약 이 허공이 원인 없이 스스로 생긴다면 파기 전에는 어찌하여 허공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땅만 보일 뿐 빈 구멍인 허공이 생기지 않는가? 만약 흙을 인하여 나온다면 응당히 흙이 나올 적에 허공이 들어감을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흙만 나오고 허공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허공이 흙을 인하여 나온다 하겠느냐? 한 우물을 파면 허공이 한 우물만큼 생긴다고 하나, 허공은 시방에 원만하거늘 어찌 방소(方所)가 있겠느냐?"

〈강설〉

물질적인 형체가 없는 것이 허공인데, 이 허공이 색(色)을 인하여 인식되는 것이다. 실라벌성에 사는 사람들이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할 때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하는 이야기를 통해 공대(空大)의 출처를 묻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사성(四姓)의 신분들이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우물을 팔 때 땅을 파서 생기는 구덩이 공간인 허공을 두고 이것 역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여래장인 미묘한 진여 그 자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사성계급에 바라문이 먼저인데 찰제리(왕족 신분)를 먼저 들었다. 바라타는 바라문에 속하는 신분의 하나다. 바라문 중에서 상위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바라문을 가리키는 말이다. 전다라는 수타(수드라)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의 집단이다. 우물을 파는 것이 땅을 파는 것인데 흙을 파낸 것만큼 구덩이 공간이 생기는데 이를 빈 공간이란 뜻으로 허공이라 했다. 깊이 팔수록 커지고 얕게 파면 작다. 흙을 파내어 빈 공간이 생겼으니 이 공간 자체가 흙 때문에 생겼느냐고 묻는다. 파서 허공이 생겼다면 파지 않았을 때는 허공이 없었던 것이냐는 말이다. 또 흙과 허공이 같다면 흙이 나올 때 허공은 왜 안 나오느냐는 것이다. 파는 것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왜 흙이 나오고 나서야 허공을 보게 되느냐 한다. 괭이로 땅을 판다면 괭이는 사람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고, 흙은 땅을 인해 옮겨지니 허공이 무엇을 인해 생기는가? 그렇다고 허공이 오는 데도 없이 스스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 대목에 경의 원문에 '성품은 원만하고 두루하여 본래 동요하지 않는다(性圓周遍 本不動搖)'라는 말이 나온다. 지(地)·수(水)·화(火)·풍(風) 사대(四大)뿐만 아니라. 공(空)·견(見)·식(識)을 합한 칠대(七大)가 성품 자리에서 보면 시방 법계에 꽉 찼다는 말이다. 성은 모두 주변원융(周遍圓融)하다. 그래서 의상 스님의 법성게에서 '법성은 원융하여 상대적 차별이 없다(法性圓融無二相)' 하였다. 다만 각(大)의 성이 법성(法性)에서 점성(點性) 혹은 배성(配性)된다는 말이 〈능엄경〉 소(疏)에 나온다. 점성(點性)이라는 말은 성(性)을 점찍어 준다는 뜻이고 배성(配性)은 성을 배급해 준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오행(五行)의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각 성(性)이 법성(法性) 안에서는 주변원융(周遍圓融)하지만 법성에서 점성 혹은 배성되어서 각 오행의 성이 나눠진다는 것이다. 사대(四大)나 칠대(七大)도 그와 같이 그 근본은 법성인 여래장묘진여성이라는 것이다. 허공은 본래 생멸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생멸이 없는 것은 출입이 없고 적멸부동(寂滅不動)인 것이다. '여래장 가운데 성(性)이 각(覺)인 진공(眞空)과 성이 공인 진각(眞覺)이 청정하고 본연하다' 하여 똑같은 맺는 말을 하는데 각(覺)은 체(體)가 되고 허공은 상(相)이 되는 것이라 체를 먼저 말하여 성(性)이 각(覺)인 진공(眞空)과 성(性) 공(空)인 진각(眞覺)이라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어미 닭이 알 품듯 한 물건 주시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⑰ 갈비뼈순화와 꼬리뼈순화

중심과 영대의 통로를 연결하는 방법이다. 숨을 들이쉬면서 기운을 명문에 모은다. 날숨에 '옴' 자 발성을 하면서 중심의 진동이 영대까지 퍼져나가게 한다. 점차로 중심과 영대가 공명하면서 통로가 형성된다. 반복해서 수련한다.

중심과 영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기운의 내왕은 들숨 때와 날숨 때에 서로 다른 경로가 쓰인다. 들숨 때는 중심에서 갈비뼈를 통해 영대로 기운이 밀려나가고, 날숨 때는 영대에서 직선 통로로 중심으로 유입된다. 이 과정에서부터 갈비뼈가 열린다. '옴' 자 발성으로 중심과 영대를 함께 울려주면 영대에 모여 있던 기운이 다시 중심으로 이동해 온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행한다. 반신 소주천의 경로를 확보하는 다섯 번째 과정이다.

하단전과 명문, 중단전과 영대 간의 경로를 서로 연결시키는 방법이다. 숨을 들이쉬면서 명문으로 기운을 모은다. 날숨에 '옴' 자 발성을 하면서 중심과 명문을 함께 주시한다. 반복하면 명문의 기운이 영대로 올라와서 중심으로 이동한다. 명문의 기운이 영대로 이동할 때는 농구공만 한 열기 덩어리가 올라온다. 명문의 선천원기가 중심으로 모이면 가슴 전체가 부풀어 오른다. 그러면서 가슴바탕에 철벽이 생긴다. 이때부터 갈비뼈 순화를 행한다.

들숨에 영대를 주시하면서 양쪽 갈비뼈를 통해 기운을 등 쪽으로 보낸다. 날숨에 '옴' 자 발성을 하면서 영대와 중심을 함께 울려준다. 그러면 기운이 중심으로 이동해온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갈비뼈 순화가 이루어진다. 갈비뼈 순화가 이루어지면서 선천원기도 함께 순화된다. 그러면 열감도 사라지고 거친 성향도 부드럽고 미세하게 변화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중심의 기운을 하단전으로 내린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갈비뼈 순화가 이루어지면 4선정을 성취한 것이다.

중심이 철벽을 이루었을 때가 3선정의 상태이고 갈비뼈 순화가 끝나면 4선정을 이룬 것이다. 4선정은 견성오도를 성취한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밝은성품이 생성된다. 갈비뼈 순화를 하면서 선천원기의 거칢을 제도해 주는 것이 밝은성품이다. 영대와 중심 사이를 선천원기가 내왕하는 과정에서 밝은성품과 서로 합쳐진다. 갈비뼈 순화를 하면서 견성오도가 이루어지면 심과 식의 추업을 제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진다. 그러면서 공무변처해탈과 식무변처해탈, 비상비비상처해탈을 이룰 수 있는 근기를 갖추게 된다. 이후에 진행되는 반신 소주천의 방법은 5선정의 공무변처해탈의 과정이다.

꼬리뼈 순화는 반신 소주천을 운용하면서 꼬리뼈 순화를 병행하는 과정이다. 먼저 중심의 기운을 하단전으로 내려오게 한다. 들숨에 영대를 주시하며, 중심에서 갈비뼈를 타고 영대로 기운을 보낸다. '옴' 자 발성을 하면서 하단전을 울려준다. 중심에서 하단전으로 기운이 내려온다. 중심의 고요함이 하단전으로 확장되면서 배 쪽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꿈틀거림이 생겨나고 진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싸늘한 냉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어떤 경우라도 본성으로 비추어서 제도한다. 그러다 보면 모든 증상들이 사라지고 둥근 기둥처럼 텅 빈 공간이 생겨난다. 그러면서 아랫배 전체가 후끈한 열기로 채워진다. '옴' 자 발성으로 중심과 하단전이 공명하면 하단전으로 기운이 응집된다. 이때 마치 물속에 비친 달처럼 푸르스름한 빛이 하단전에 맺히게 된다. 이 상태를 "한 물건이 형성됐다"라고 말한다. 들숨으로는 갈비뼈를 순화해주고 날숨으로는 '옴' 자 발성으로 중심과 하단전을 울려주면서 하단전에 맺혀 있는 한 물건에 각성을 집중한다. 마치 어미 닭이 알을 품듯이 한 물건을 주시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스님의 〈능가경〉 강설

⑰ 일체법의 진제

실체는 개념의 세상에는 없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마음속에 참과 거짓이라는 주사위를 담고 살아간다. 어떤 사건과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속 주사위를 던지게 된다. 그리고 일의 경중에 따라, 그 던지는 시간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은 누구를 통해 학습하는 일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명체 안에 내재한 경향성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의 참과 거짓은 '이것'이라고 특정하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유기적인 개체의 판단이면서 취향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참일지라도 타인에게는 거짓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은 참이더라도 나에게는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참과 거짓이 사실의 바탕에서 판단하는 거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 사실의 바탕에서 말한다면, 참과 거짓은 하나의 개념이다. 참 속에 거짓이 있고, 거짓 속에 참이 있다. 참(거짓)과 거짓(참), 이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든 그것은 같은 원리이다. 그리고 사실에서 보면 개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허구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참(거짓)과 허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참(거짓)은 개체가 보는 개념의 세상이고, 허구는 개체가 보지 못하는 개념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실체는 개체의 개념적인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실체가 없다.'는 뜻은 무엇이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똑같이 물질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언어의 사용처가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 말하는 그 언어의 개념을 받아들이다 보니, 소통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겨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전달하지 못하고 서로가 머쓱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진제(眞際)가 말하는 언어는 세상에 있는 어떤 언어와 모양에 대해 부정과 긍정 또는 한정적 사고나 포괄적 사고에 대해 표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제는 말하는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밖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밖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정확히 들어야 한다. 진제의 언어는 말하는 주체의 불성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으로 존재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들을 수 없다. 꼭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들리게 되고, 그렇게 듣고 싶어 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실체를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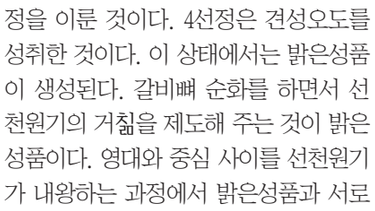
대혜가 대답했다. "그들은 먼저 탐진치 등의 심리 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는, 이어서 다시 그것들을 떨쳐 내려 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려 하며, 다시 그들에게 있는 자성의 근본을 부정하려 합니다."

이솝우화 중 '고깃덩어리를 입에 문 개' 이야기가 있다. 고깃덩어리를 입에 문 개가 강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더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는 다른 개라고 생각하고는 짖는 바람에 자신이 물고 있던 고기를 잃어버린다는 내용이다. 그 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근심하겠지만, 진제의 입장에서는 무엇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 근심하는 개체의 입장에서는 그 고깃덩어리가 자신에게서 사라졌으니 잃어버렸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강물에 남아있다. 개체가 사용하는 '있다'와 '없다'는 개체의 상태나 위치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본원적인 것을 말하면, 우리가 지칭하는 '나'라는 언어는 사실적인 어떤 대상이 없다. 그런데 그 지칭할 수 없는 '나'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온을 '나'라고 하게 되면, 지칭할 수 없는 '나'의 입에 온전히 있던 그 '고깃덩어리'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항상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은 이 허탈함에서 기인한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오온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진제는 사실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법당서 누구 망신?

마이크와 2m 멀리서 작은 소리에도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염불소리로 바꾸어 드리는 최신 디지털 마이크 소개 : 법당서 스님 마이크와 본사 마이크와 스님 자신이 양손에 염불을 해 볼시 추호라도 광고 내용과 다르면 법당서 누구 망신?....비교시 장난감 성능 차이를 확인

오직! 마이크만 바꿔도 수 천번의 염불이 내 귀에 신명으로 힐링되니 보물이 따로 없다.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수 천만원까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7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 방문 시설가격
₩ 78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